소년단

1960.2

소년단원들이여! 산과 들에 경제림을 일쿠고 알뜰히 가꾸자!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0년 2호 내용

로동당 만세!

(제 3 회)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지지하는 로동자들

박 세 영

굴뚝의 연기도

높은 담을 쌓고, 철망을 둘른건
감옥이나 공장만이 아니였다.
크고 적은 일터들이 모두 저의 거라
보이지 않는 왜놈의 철망 둘렀었다.

로동자들의 분한 마음 타올은 공장들,
달리는 기차와 널려 있는 은행들,
입 벌린 길'가의 우체통들까지 모두
우리 나라의 재물 그악스레 삼켰드란다.

남의 나라 빼앗고 주인 노릇하던 왜놈들
우리 피땀으로 집도 덩그러니 잘도 살때
아버지, 형님들 죽도록 일을 해도
버섯 같은 지붕 밑에서 굶주리였다.

그러기 김 일성 원수님과 공산주의자들
밀림에서 해가 솟듯 싸우며 생각했드라.
왜놈과 개놈들이 차지한 것 앗아내여
인민의 행복 위한 것 되라 싸웠드라.

해방 은인 쏘련 군대는 우릴 돌봐주고
나라의 정권 인민이 틀어 쥐였으니
모두 앗아냈더라 나라를 세울 밑천으로
당은 굴뚝의 연기도 춤추게 했더라.

로동 법령 실시를 경축하는 근로자들의 시위

쇠사슬은 끊어졌다

말만 들어도 로동자들은 기뻐 뛰였다.
여덟 시간만 일을 하게 됐다니,
어머니, 누나들도 남자처럼 돈을 타고,
해마다 휴가를 받게된 로동 법령.

동무들아 로동당이 아니였으면
어떻게 꿈엔들 바랄 수나 있었으랴.
칭칭 몸에 감기였던 쇠사슬은
로동자들 몸에서 끊어져 나갔다.

공부할 나이에 집안 살림 도우려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로동에 병들고
애기 낳는 어머니들 일터에서 쫓겨나
얼마나 많이 거리에서 쓰러졌드냐.

지금도 그 옛날 같은 남반부
로동자들은 아우성치며 싸운다.
더는 노예처럼 일할 수 없다고
밀린 싹전. 떼먹은 싹전 어서 내라고.

그런데 금강산, 묘향산 모든 명승지가
어서와 쉬라 로동자들을 부른다.
로동당이 더 없이 영예로운 우리 나라
생활도 일처럼 날개를 펼친다.

남녀 평등권 법령을 지지 환영하는 군중 시위

어머니의 념원대로

《네가 대학을 졸업했다니
정말 좋은 세상이구나》
어머니는 고향에 돌아온 딸을 보고
목이 메듯 말씀 하셨네.

《나는 처녀 때 울타리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갔단다.
더구나 소작사리 가난한 집 딸이니
학교 문 앞에들 가보았겠니》

딸의 눈에는 똑똑히 어렸네
먼 옛날로부터 노예처럼 살아온
어머니들의 불쌍한 모습들이
보람없이 살아온 어머니들의 모습들이.

그러나 눈물에 젖은 치마를
딸에게 물려주던 세상은 가버렸네
당이 이끄는 민주의 나라는
녀성 해방의 종을 울리였네.

나라의 딸로 어머니들을 위하는 새나라
이제야 못 할일 세상에 없을 듯
어머니들은 행복을 느낀다네
김 일성 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네.

원주의 귀'가에는 공작 나간 오삼 형님의 말 소리가 똑똑히 되살아 났다. 《그렇다.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공부하자!》하고 원주는 굳은 결심을 다졌다. 만석이는 자기가 도와주겠노라고 하면서 학습은 아동단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반년이 지나는 동안 원주는 벌써 쉬운 책들을 읽을 수 있게까지 되였다. 그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쉬여 밤잠도 변변히 자지 않고 학습하였다. 밤에는 등'불이 없어 모닥 불을 놓고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공부하였다.

어느날 원주에게는 뜻하지 않은 기쁜 일이 생겼다. 그것은 유격대원이된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온 것이였다. 편지를 받은 순간은 기뻤으나 이어 그의 얼굴은 흐려졌다. 그는 편지를 읽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에 편지를 가져 온 현 아동국장인 박 만석이가 편지를 읽어 주었는데 아버지는 벌써 글을 배워 편지까지 쓰게 되였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원주는 모래주머니를 장만하였다. 그는 식량으로 버섯과 나무를 캐러 다니거나 밭에서 일하는 짬짬을 타서 주머니를 풀어 놓고 손가락으로 글을 써보군 하였다. 한자 두자 익혀지는 글 공부에 재미가 난 원주는 차츰 소경이 눈을 뜨듯 앞이 환히 내다 보이는 것만 같았다.

원주의 노력은 무서웠다. 그는 오삼 형님과 만석이의 친절한 도움으로 많은 새 지식을 배웠고 드디여 그는 김 일성 장군의 가르침을 받는 영예로운 아동단에 입단하였다. 입단 서약문을 읽는 원주의 가슴은 혁명을 위해 몸바쳐 싸울 굳은 결심으로 들끓었다.

아동단원이된 이후 원주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는 다른 아이들 보다 류달리 학습에 열중했고 조직이 주는 임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꼭꼭 해내군 하였다. 그는 반년만에 벌써 아동단 분대장(지금의 소년단 반장)으로써 활동하였다. 어느날 그는 현 공청의 지시로 비밀 통신 련락 임무를 맡고 떠나게 되였다. 원주는 동생 원식이와 영원히 헤여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원주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 오고 있을 때였다. 평천구 가까이 이르렀을 때 멀리 부락쪽에서 요란한 총 소리가 들려왔다. 원주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는 단숨에 부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뛰여 올라갔다. 부락에서는 왜놈 《토벌대》 놈들이 질러 놓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다.

원주가 정신 없이 부락으로 달려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다급히 그를 불렀다. 얼핏 돌아보니 아동 국장 만석이가 피투성이된 원식이를 업고 있지 않는가! 《원식아!》 원주는 비통한 소리를 지르며 동생에게로 달려 들었다.

《원식아! 나다, 형이야!》하고 원주는 동생을 품에 받아 안으며 소리쳤다. 그러나 원식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던 것이다. 부녀회원 아주머니를 따라 도망치던 원식이는 놈들의 총알에 맞아 쓰러졌다. 아주머니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원주는 동생마저 왜놈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동생을 잃은 원주는 응군 이틀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였다. 이 때에 공작에서 돌아온 문 오삼 형님이 슬픔에 잠겨 있는 원주를 찾아 왔다.

《원주야! 우리가 왜놈들을 쳐부시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슬픔도 참아야 한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슬픔도 참아 낼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더 많은 왜놈들을 쳐부시는 힘과 용기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다!》

동생을 잃은 뒤부터 원주의 두 눈에는 왜놈들을 미워하는 무서운 적개심이 이글이글 불타 올랐다. 그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면 늘 앞장 서 나아가군 하였다.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 날이였다. 이날 원주는 보초 당번인 창호라는 아동단원이 갑자기 배앓이를 하게 되여 그대신 보초를 서게 되였다. 그는 이미 다른 구역의 보초를 서고 들어 온 길이였으나 자진하여 또 보초로 나갔다.

마을 동쪽 큰 소나무 우에 가까스로 기여 올은 원주는 이를 새려물고 감시하였다. 온 벌판의 눈을 휩쓸어 올리는 눈보라는 나무 우에 올라 앉은 원주에게 한 무더기씩 눈가'루를 들씌우군 하였다.

순식간에 온몸은 꽛꽛이 얼어드는 것만 같았다. 벌써 발과 손은 감각을 잃었다. 그러나 원주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감시의 눈을 번쩍이고 있었다.

아침에 옥수수 삶은 것을 한줌 먹은 뒤로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원주는 몹시 허기찼다. 게다가 령하 30도의 추위로 하여 그는 자꾸만 졸렸다. 아무리 졸지 않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는 어느 사이엔가 나무 우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이런때 눈보라 속에서 웬 그림자 하나가 얼씬 거렸다. 그는 사방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재빨리 나무 그루 뒤에 숨군하였다. 이상한 그림자는 원주가 올라가 있는 소나무 밑에까지 왔다. 그리고는 마을을 살펴 보노라 고개를 기웃거렸다. 이는 마을을 정탐온 특무 리 덕삼이였다.

특무 리 덕삼이 다시 마을로 기여 들려 할때 였다. 《누구야!》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숲 속에서 들려 나왔다. 그러자 리 덕삼은 재빨리 나무 그루에 숨으며 권총을 빼들었다. 두 사람이 급히 달려왔다. 《팡!》 요란한 총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키 큰 사람이 비칠거렸다. 그는 공청 책임자 문 오삼 형님이였다. 특무는 그 틈을 타서 눈구름 속으로 도망쳤다.

총 소리에 정신을 번쩍 차린 원주는 깜짝 놀랐다. 총탄에 맞아 비칠 걸리는 문 오삼 형님을 본 것이다. 오삼 형님은 아동국장 만석이와 함께 원주를 걱정하여 찾아 오던 길에 그만 부상을 당했던 것이다. 오삼 형님은 왼 팔을 움켜쥔 채 소나무 우를 향해 《원주야! 원주!》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온 몸이 꽛꽛이 얼어 들어 움직일 수 없게된 원주는 입을 열수가 없었다. 《만석아 빨리 원주 있는데 올라가 봐,》하고 오삼 형님이 다급히 소리쳤다.

(다음호에 계속)

명옥—영남 동무 안녕하세요? 저는 평남 양덕군 온천 중학교대 제 1분단 위원장입니다.

영남—먼데서 오셨군요. 참말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명옥—분단 계획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겠는가를 알려고 찾아왔어요.

영남—아!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말해 드리지요. 먼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동무들이 다 모인데서나 또는 반모임에서 먼'저달의 계획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벽보에다 《지난 한달 동안에 어느 일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새 달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써부쳐 소년단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분단 동무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 위원회에서 그달에 내놓은 계획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분단에서 할 일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안 다음에 열성자들은 모여 앉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다 되면 곧 분단 모임을 열고 외론 해야 합니다.

그럼 3월을 놓고 생각해 볼가요. 3월에는 무엇이 중심이 될수 있을 가요? 제 2학기 학습과 봄 맞이가 될수도 있지요, 2학기는 모든 학기중 가장 중요한 학기 이니까요, 그래서 전체 동무들이 학습에 열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분단에서는 《혁명투사들 처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모임을 열고 소년단원들이 학습규률을 잘 지키며 열심히 공부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는 분단 열성자 모임에서《제 2반에서는 대수 실력을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 《제 5반에서는 뒤떨어진 동무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가?》 등을 토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 벽보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동무들을 칭찬해 주며 게으름뱅이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봄맞이 사업입니다.

분단이 맡은 실습지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심을 씨앗의 발아 시험도 하며 비료도 마련 해야 합니다.

또한 대에서 조직한 경제림을 잘 일구기 위한 경쟁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일도 계획에 넣야 합니다.

그리고 토끼를 더 잘 키우기 위하여 토끼 우리 수리도 계획하고 토끼 사양 크루쇼크 동무들을 중심으로 토끼 기르는 데서 얻은 경험을 나누는 모임도 계획 해야 합니다.

참, 올해 나라에서는 외화를 얻는 일을 중요하게 내놓았지요? 그러니까 소년단원들이 외화로 될 수 있는 호박, 수세미 오이, 피마주, 해바라기 등을 많이 심기 위한 일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재미 있는 문화 오락 사업을 계획에 넣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옥—참 많이 배웠습니다. 분단에 돌아 가면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남 해주시 해주 고급 중학교대에서—

최 죽 산

원순이와 명훈이는 누구보다 토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분단에서는 토끼 기르기에 경험이 많고 열성이 높은 원순이와 명훈이에게 분단의 토끼를 잘 기르도록 지도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원순이와 명훈이는 분단에서 맡은 이 일을 잘 하자면 새끼를 많이 내워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순이와 명훈이는 먼저 종자 토끼를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쌍부치기 한 10일 전부터 이 암토끼에게 좋은 사료를 먹이면서 특별히 잘 돌보았습니다.

암토끼가 튼튼치 못하면 새끼를 잃가질 수도 있고 새끼를 가졌다해도 약한 새끼를 낳게 되기 때문이였습니다.

다음은 쌍부칠 숫토끼를 골랐습니다.

숫토끼는 암토끼 보다 좀 나이 든 것으로 골랐습니다. 젊은 암토끼는 늙은 숫토끼와 쌍을 부쳐야 새끼를 더 많이 낳으며 또 건강하고도 큼직한 새끼들을 낳기 때문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컷을 더 많이 낳기 때문이였습니다.

이것은 35호장 어미 토끼를 실험하여 작년 12월에 새끼를 내워본 결과 얻은 경험이였습니다.

원순이와 명훈이가 고른 종자토끼들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얼마후 암토끼는 암내를 일으켰습니다.

명훈이는 급하게도 곧 쌍을 부치자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원순이는 오후에 쌍을 부치자고 하였습니다.

겨울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뜻한 오후에 쌍을 부쳐야 좋고 여름에는 무더운 낮 보다 해가 뜨기전 선선할 때 쌍을 부쳐야 새끼를 잘 밴다는 것을 원순이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암토끼가 암내를 일으킨 때로부터 한 2시간 지나서 쌍을 부쳤습니다.

처음엔 찐찌라 숫토끼와 쌍을 부쳤고 5~10분쯤 지난 후 메리껜종 숫토끼와 또 쌍을 부쳤습니다.

원순이와 명훈이는 새끼밴 토끼를 놀래우지 않도록 토끼우리 옆에 있던 닭우리, 염소 집을 얼마쯤 떨어진 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원순이와 명훈이는 이튿날부터 새끼를 낳을 때까지 사료를 두 계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쌍을 부쳐 새끼를 가진 첫날부터 16일 동안은 그전대로 주었고 그 후부터 영양분이 많은 사료들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사료로서는 가을에 장만해 두었던 아까시야잎 칡잎 등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료에다 100g의 겨와 10g의 조개가루, 한방울의 간유를 섞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암토끼는 먹지 않고 살장을 자꾸 톱끼만 했습니다. 물을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이웃 사과쨈 공장에서 얻어온 사과쨈 찌꺼기를 끓여 먹음직한 물을 내서 암토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원순이의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분단 동무들도 원순이와 같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드디여 원인을 밝혀 내고야 말았습니다. 광물질 사료가 모자랐던 것입니다. 광물질 사료는 어미 토끼의 입맛을 돋구고 특히는 배'속 새끼들의 뼈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사료입니다.

분단 동무들은 방과 후 맵짠 바람이 부는 바다'가로 달려가서 굴껍질과 조개껍질을 한 바게쯔 주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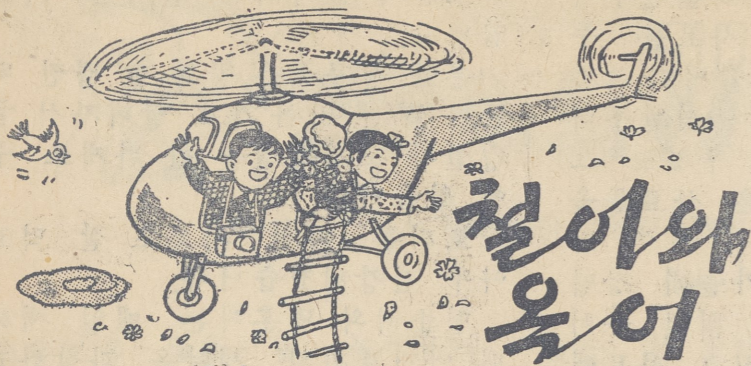
토끼는 다시 사료도 잘 먹고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원순이와 명훈이는 매일 새끼밴 어미토끼의 생활을 관찰하고 일기에 적군 하였습니다.

눈이 푸실푸실 내리는 어느날이였습니다. 토끼 우리엔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원순이와 명훈이가 그처럼 돌보아 온 토끼가 16마리의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원순이는 너무도 기뻐 명훈의 목을 그러 안고 빙글빙글 돌아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명훈이와 원순이는 분단 동무들과 함께 이 경험을 살려 더 열성스럽게 토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철이와 옥이

철이—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는 설 할아버지께서 올해 나라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며칠 후 무역성 선전처에 들렸지요.

이미 설할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올해 나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중 우리들의 힘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외화를 많이 얻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외화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알고서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한 것이예요.

우리가 찾아 온 뜻을 말했을 때 선전처 아저씨는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

《금년에 외화를 얻는 일이 왜 중요하게 나섰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건 말이다. 너희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올해 나라에서는 농촌의 기계화를 제일 중요한 일로 내놓았지. 그래서 올해는 농촌에 3,000대의 뜨락또르와 3,000대의 자동차 그리고 다른 많은 농기계를 만들어 농촌에 보내는 한편 모잘아는건 외국에서 사들여야 한단다. 그뿐이 아니지, 나라에서는 올해 인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풍부히 하기위해 우리의 힘으로 많은 물품과 식료품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의 생활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을 외국에서 사들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화를 많이 얻는 것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데도 필요하단다.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면 그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원료와 자재들 중에서 아직 우리 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원유, 생고무, 곡쓰탄, 가스탄 같은 것은 사들여야 한단다.

그러자면 결국 그것을 사들일 외국돈이 많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로동당에서는 외화를 얻기 위해 전체 인민들이 일떠서서 한결 같이 힘써야 한다고 가르쳤단다. 우리 나라에는 외국에 팔면 외국 돈으로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중에서 소년단원들이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피마주, 해바라기, 수세미오이

호박씨, 아까시야씨, 이깔나무씨, 뽕씨 닭털, 오리털, 돼지털, 소털, 짐승뼈 같은 것들이 있지,

이것을 보면 얼마나 값있는 물건들인가를 잘 알게 될거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내 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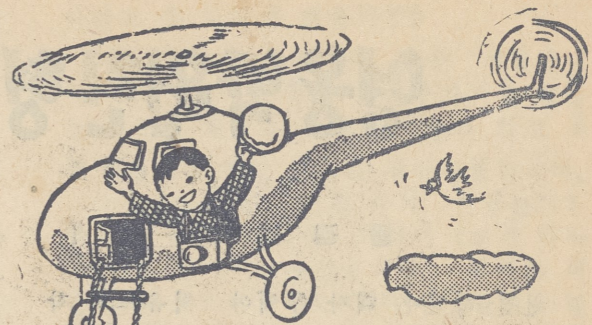
피마주씨 10 톤의 값은	뜨락또르 1대와 기름 1톤의 값과 같다
해바라기씨 1 톤의 값은	휘발유 3톤의 값과 같다
호박씨 1 톤의 값은	손시계 32개의 값과 같다
이깔나무씨 1톤 반의 값은	뜨락또르 2대의 값과 같다
뽕씨 10키로그람의 값은	면직 90메터의 값과 같다
아까시야씨 10키로 그람의 값은	탁상 시계 3개의 값과 같다
수세미 오이 50개의 값은	손시계 1개의 값과 같다
닭털 1톤의 값은	뜨락또르 1대의 값과 같다
송이버섯 1톤의 값은	면직물 30메터의 값과 같다

철이—우리는 어서 이것을 소년단원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헤리꼽타》를 탔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한떼의 소년단원들이 무엇인가 가득 밀차에 싣고 신 바람이 나서 끌고 가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까이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평양 사곡 중학교 동무 들이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지요.

《너흰 뭣들 싣고 가기에 이렇게 야단법석이냐?》

《자 좀 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은 피마주, 해바라기, 닭털, 수세미 오이를 수매소로 싣고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얼굴 마다에는 나라를 돕는다는 기쁨과 자랑이 물결치고 있었지요.

우리는 그들의 기특한 일에 감탄하면서 다시 《헤리꼽타》를 몰고 동쪽으로 날았지요. 우리가 강원도 고산군에 다달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산골짜기 양지바른 언덕에서 많은 소년단원들이 무언가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헤리꼽타》를 공중에 세우고 그리로 내려 갔지요. 그들은 석왕사 중학교 동무들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옥이가 물었지요.

《넌 우리가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니? 우린 지금 외화로 될 수 있는 나무씨들을 따고 있단다. 벌써 우리 학교에서는 100kg의 나무씨를 모았단다. 우리 학교 대모임에서는 올해 여러가지 나무씨 1 톤을 모으기로 결정했단다.》 한 소년단원이 신이 나서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가는 곳 마다에서 이런 착한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소년단원들의 뜨거운 마음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한 오리의 닭털과 한 그람의 아까시아씨, 호박씨라도 더 많이 모아서 나라에 바칩시다.

영웅 박원진 형님에 대한 이야기

글 김병익　　　　그림 리서우

원진 형님은 해방 후에야 처음으로 학교에 갔고 소년단 생활도 하게 되였습니다.

나이는 열 두살이지만 몸'집이 작고 말이 없는 원진 형님이여서 그는 어떤 아이들 속에서도 곧잘 어울렸습니다.

그렇지만 가무잡잡한 얼굴, 샛'별처럼 빛나는 눈이며 언제 봐도 굳게 다문 입, 단정한 옷차림에 약간 고개를 숙이고 걸어 다니는 형님의 모습은 항상 아이들 가운데서 돋 보였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소년단 생활에 누구보다 모범이였고 말보다 실천이 앞섰습니다.

쉬는 시간 같은 때도 교실이나 복도에서 어지러운 것이 눈에 띄면 남이 손댈 사이 없이 벌써 비를 들고 와서 말없이 쓸어다 버리군 하였지요.

형님은 소년단 모임에 빠진 일이 없었고 결정한 문제를 실천하는데 들어서도 앞장에 섰습니다. 그는 분단이나 반에서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앞장에 나섰고 동무들의 일도 제일처럼 거들어 주군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원진 형님은 상메장'거리까지 이십오리나 되는 산'골길을 혼자서 동무들의 몫까지 맡아 가지고 가서 연필도 사오고 노트도 사오군 하였지요.

그는 집에 돌아 가서도 짬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드렸습니다.

원진 형님네 집 살림은 해마다 늘어갔습니다.

해방전에는 죽도 먹기 힘들던 원진 형님네 집에는 햇곡식이 날때까지 곡식 가마니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도 한마리 매게되고 돼지도 한두마리씩은 떨구지 않고 치게 되였으니까요.

≪이게 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장군님의 덕분이란다.≫

아버지는 소고삐를 끌어다 외양'간에 맬때면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진 형님은 성수가 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형님이 그만 두라고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꼴망태를 메고 나가 한 아름씩 소꼴을 베오군 하였지요.

바로 이러하던 1950년 초 여름이였습니다. 원쑤 미제와 리 승만 도배가 전쟁의 불을 질렀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원진이의 어린 가슴에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 강토를 함부로 짓밟고 자기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불타 올랐습니다.

1950년 가을 하루 저녁, 저녁밥을 치르고난 원진이는 아버지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나 군대에 나갈래요!≫

원진이가 불쑥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인지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면서

≪네가 군대 나가 무얼하겠니, 총자루 하나도 변변히 메지 못할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때 바로 원진이가 열일곱살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원진 형님은 군사 동원부를 찾아 갔습니다.

군사 동원부에서도 그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 먹은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내고야마는 성미인 원진 형님의 마음을 굽힐 수는 없였습니다. 원진 형님은 몸'집이 작지만 제나이는 열 아홉살이라고 우겨대서 끝내 입대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원진 형님은 열일곱살의 어린 몸으로 영예롭게도 조선 인민군 전사가 되였습니다.

× ×

원진 형님은 처음 동부 전선에 있는 조동철 구분대에 배치되였습니다.

구분대에서는 원진 형님을 ≪꼬마 꼬마≫하면서 몹시 사랑했습니다.

원진 형님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전투 훈련에서나 작업에서도 항상 남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우들은 아직 어린 원진 형님에게 될수록 힘든 일을 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작업이 있을 때면 ≪꼬마는 집이나 지키라우≫하고.

그럴 때면 어쩐지 자기를 어리다고 숫보는 것 같아 은근히 부아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 두고 보라지 한번 본때를 뵈여 볼테니…≫

원진 형님은 학습에서도 남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애호하듯 책을 사랑했습니다. 짬만 있으면 신문을 뒤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한번은 총사령부에서 작전 국장이 부대에 내려오셨다가 원진 형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원진 동무가 학습을 잘한다는데 어디 나하고 좀 이야기 해볼가?≫

작전 국장은 웃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때 작전 국장이 스무가지를 물었는데 원진 형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대답하여 작전 국장을 감탄시켰답니다.

그후부터 부대에서는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원진 형님을 가리켜 ≪꼬마 아바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을 보아서는 ≪꼬마≫이지만 말하고 행동하는데 들어서는 ≪아바이≫라는 말이지요.

처음 형님은 소대장 련락병으로 있었습니다.

형님은 웃사람을 몹시 존경하였습니다.

형님은 제가 할 일이라면 무슨 일이던지 웃사람들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항상 소대장에게 더운 물을 끓여다 대접했고, 전선에서 중대에 련락을 갔다 올 때면 의례히 나무 한 단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소대장의 방을 뜻뜻이 해드리기 위해서였지요.

소대장과 전우들도 원진 형님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언젠가 형제 나라 웽그리야 인민들로부터 보내온 선물 과자가 그곳에도 전달되였습니다.

소대장의 책상 설합에 과자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소대장의 전우들이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안돼, 이건 우리 〈꼬마 아바이〉꺼야 나도 않먹고 둔건데…≫하고 내놓자를 않았지요. 원진이가 중대에서 돌아온 후에야 소대장은 그 과자를 꺼내 놓고 함께 먹었지요.

원진이가 첫 전투에 참가한 것은 1951년 7월 고성 해안 방어 전투였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웅적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이 원쑤놈들을 남쪽으로 내 몰고 다시는 놈들이 기어들지 못하게 38선 계선에서 기동 방

어전을 할 때였습니다.

원진 형님은 그 때 벌써 첫전투에서 훌륭한 공훈을 세워 1951년 9월 24일 영예롭게도 군공메달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군공메달을 받고 보니 기쁨이란 헤아릴 수 없었지요.

형님은 그날 밤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군공메달까지 받고보니 조국 앞에 퍽 많은 빚을 진것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집에 있을 때보다 퍽 컸습니다. 용감히 싸워 조국 앞에 진 빚을 꼭 갚고야 말겠습니다…》

그 후 원진 형님은 더욱 전투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로동당원들과 민청원들에게서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특히 형님의 호주머니에서는 김 창걸 영웅의 전투기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 중대 나팔수가 되였습니다. 원진 형님이 가장 따른 사람은 신 기철 분대장이 였습니다. 로동당원이며 련대 당위원인 신 기철 분대장은 짬만 있으면 민청에 대하여 또 로동당에 대하여 가르쳐 주군 했습니다.

원진 형님은 드디여 1951년 10월 14일 영예롭게도 민청원이 되였습니다.

형님은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민청에 가맹했다. 오늘은 나의 일생에서 정말 기쁜 날이다. 그것은 훌륭한 민청원이 되므로써 영광스러운 로동당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로동당원!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칭호인가! 그러나 훌륭한 로동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훌륭한 민청원이 되여야 한다》

민청원이 된 원진 형님의 생활은 더욱 눈에 뜨이게 달라졌습니다.

그 후 구분대에는 전략상으로 중요한 854,1 고지를 점령하라는 전투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854,1 고지는 적들이 1년 7개월이나 걸려 쌓아놓은 소위 놈들이 《철진》이라고 자랑하던 고지였습니다.

854,1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당회의와 민청 회의들이 열리였습니다.

미청원인 박 원진 형님은 민청회의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영예로운 민청원입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쳐 싸웁시다. 나는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조선 청년답게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원진 형님의 눈 앞에는 원쑤놈들의 폭격에 쓰러진 어머니의 젖가슴에 매달려 우는 어린이들의 모습이며 어린이의 시체를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의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원진 형님의 뒤를 이어 전우들도 모두 앞을 다투어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1952년 9월 22일, 854,1고지 습격 전투의 날은 다가 왔습니다.

새벽 1시! 드디여 돌격이 개시 되였습니다.

불의의 습격을 받게된 적들은 당황해서

미친 듯이 사격을 해왔습니다.

적들의 사격에 돌격로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적지않은 전우들이 희생 되였습니다.

산 중턱의 맵짤스러운 적 중기 화점에서는 계속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이 화점을 까부시지 않고는 더는 진격할 수 없는 위급한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이때 신 기철 분대장이 맨 앞장에서 달려 나갔습니다.

적진 30m 가까이까지 다가간 신 기철 분대장은 두개의 수류탄을 련거퍼 던졌습니다.

그러나 화점은 파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전우들이여! 나를 따라 앞으로》 엎드렸던 신기철 분대장이 벌떡 일어나 달려가더니 적 화점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용사들은 일시에 파도와 같이 밀려 올랐습니다. 이때 오른편에서 또 하나의 적화점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전우들이 또하나 둘씩 쓰러졌습니다.

원진 형님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신 기철 분대장이 가슴으로 열어놓은 돌격로가 또다시 멈춰 서다니 안된말이다. 나는 회의에서 뭐라고 맹세 했던가 로동당의 후비대인 민청원로서 김 창걸 영웅처럼 용감하겠다고 하지 안았던가…》

순간 원진 형님의 눈 앞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원쑤놈들의 폭격에 고향 마을이 불타고 그 속에 쓰러진 어머니의 젖가슴을 후비며 애타게 우는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귀'가를 스치는 것같았습니다.

그러자 최후의 결전에로 부르시는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장군의 영상이 떠 올랐습니다.

원진 형님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총을 꽉 틀어쥐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 전사 박 원진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당신의 명령대로 원쑤놈들의 숨통을 끊고야 말겠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든 박 원진 형님은 《전우들이여 돌격 앞으로!》 소리 높이 웨치며 적 화구에 뛰여 들어 불을 토하는 적 중기 총신을 두 손으로 으스러지도록 끌어 안았습니다. 짖어대던 적 중기화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세! 만세!》 고지를 진동하는 돌격 만세 소리와 함께 고지는 순식간에 점령되였습니다.

× ×

이리하여 그 나이 열 여덟 꽃피는 청춘—박 원진 형님의 심장의 고동은 멎었습니다.

그러나 박 원진 형님이 남긴 위훈은 날로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특히 형님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된 형님의 고향 원진리(평북도 구성군)의 이름과 함께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두개의 붉은 줄

—평양시 교구 중학교대 13 분단에서—

조 병권

《학습에 뒤떨어진 동무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훌륭히 공부하는 분단, 한 마음 한 뜻이 되여 서로 돕고 사랑하는 화목한 분단, 그런 분단은 얼마나 좋을가!》

분단 열성자 선거 모임에서 분단 위원장으로 선거된 리 낭자는 두 개의 붉은 줄이간 열성자 표식을 왼팔에 달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순간 그의 귀'가에는

《나는 낭자 동무가 열성자로 선거되면 우리 분단을 모범 분단으로 꾸려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라고 분단 열성자 선거 모임에서 토론하던 최 완실 동무의 이야기가 되살아 났습니다.

《그렇다 동무들은 나에게 이 무거운 책임을 주었다. 나는 우리 분단을 모범 분단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테다.》

낭자는 이튿날부터 57명 분단원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여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낭자는 벌써 여러 번 대위원회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단의 토응실 동무가 웃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버릇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단이 주는 일을 잘 하지도 않았고 거칫하면 동무들과 쌈질만 하였습니다. 또 김 정애 동무는 이 사람에게 가서는 저 사람을 흉보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의 흉을 보면서 동무들의 사이를 벌려 놓아 분단을 화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는 동무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게을리하는 동무, 집단의 규률을 지키지 않는 동무들도 자주 나타 났습니다.

낭자는 그런 동무들이 몹시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화풀이라도 실컷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팔에 달린 두 개의 붉은 줄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생각던 끝에 낭자는 도리여 이런 동무들과 더 가까이 지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분단이 주는 일을 잘 하지도 않고 말썽만 부리는 응실이와 더욱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응실이도 낭자에게 숨기는 것이 없게까지 됐습니다.

어느날 응실이는 낭자더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그전 연예 써클을 조직하던 날 마음이 좋지 않더라, 난 노래를 잘 부르진 못하지만 음악을 제일 좋아해, 그런데 날 빼놓으니 참 서운하더라…》

사실 응실이는 음악을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분단에서는 학교의 연예 써클을 조직할 때 목청이 아름다운 몇 사람만 골라서 추천하다 나니까 응실이는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응실이는 열성자들을 괘씸하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낭자는 곧 이 사실을 대위원회에 알리고 그를 연예 써클에 넣어 주었습니다.

낭자가 응실네 집에 처음 찾아 갔을 때 일입니다. 부엌에서 할머니가 응실이를 불렀습니다.

《응실아! 얘 응실아!》

《왜 그래?》

《할미 물 좀 길어 주렴.》

《싫어, 난 인제 어데 가…》

응실이는 어려서 부모를 여이고 할머니의 손에서 고이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하나 밖에 없는 응실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 주었고 또 응석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응실이는 집에서 이렇게 버릇 없이 할머니를 대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와서도 저만 잘났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낭자는 그 자리에서 응실이의 옳지 않은 말 버릇에 대하여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부엌으로 나가 할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제야 응실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 후에 낭자는 자주 응실네 집에찾아 가서 할머니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응실에게 소년단원은 언제 어데서나 례절을 잘 지키며 웃어른을 존경하고 동생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낭자의 이 행동은 응실이가 소년단원의 의무를 훌륭히 실천하는 소년단원으로 되도록 도왔습니다.

낭자는 어떠한 말썽'군이라도 열성자들이 참되게 고쳐 주자고 달려 붙으면 못고쳐 줄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낭자는 분단 열성자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응실이와 친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열성자들이 소년단원들과 더 가깝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열성자들은 분단에서 밉게만 보던 말성 많은 동무들과 친한 사이가 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새로운 일들을 많이 조직했습다.

지금 분단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의견을 듣는 좌담회를 자주 가집니다. 이것은 앉아서는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데 막상 동무들 앞에 나서면 말이 막혀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리 윤희 동무의 의견에 의해서 가지는 모임입니다.

정말 좌담회에서는 많은 동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분단에서는 동무들이 내놓는 의견을 들어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많은 일을 조직합니다. 지금 분단에서 매주 토요일에 가지는 《유쾌한 모임》도 소년단원들의 제의에 의해서 조직하는 모임입니다. 이날에는 음악이나 무용을 배우기도 하고 반별로 만담, 재담, 동화구연 등으로 자기들의 재주를 다 내놓습니다. 소년단원들은 이날을 제일 좋아합니다.

낭자는 동무들을 사랑하면서도 잘못을 보면 용서치 않습니다. 한 번은 분단 기수 안 인숙 동무에게 양 화자 동무가 로어 학습에서 모를 것이 있어 물으려 왔습니다. 그런데 인숙 동무는 옆의 동무에게 가서 물어 보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고 돌려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열린 열성자 모임에서 낭자는 인숙 동무의 잘못에 대하여 친절히 타일러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숙 동무는 학습에서 뒤떨어진 동무들을 찾아 다니면서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낭자는 자기의 팔에 달린 두 개의 붉은 줄을 잊지 않고 57명의 동무들이 한덩어리로 뭉쳐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단은 한 사람처럼 단결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다른 분단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분단 사업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낭자와 13분단 동무들

쉬지 않고 달리는 뜨락또르

글 최옥선　　　그림 정승교

갈림'길에서 신작로로 나선 평남 중화 중학교 김 금실, 김 옥금 소년단원들은 들려오는 뜨락또르 엔징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뜨락또르가 온다!》

앞길을 바라 보던 금실이가 《야 〈민청호〉 뜨락또르다! 리 춘식 아저씨가 모는 쉬지 않는 뜨락또르야!》

두 동무는 책가방을 달랑거리며 뜨락또르를 마주 향해 달려갔습니다.

《춘식 아저씨! 춘식 아저씨!》

시원한 얼굴에 미소를 띄우신 춘식 아저씨는 《어ㅡ 우리 꼬마 농학가들이군! 집으로 가는 길이냐? 올라 타거라! 작업소 앞까지 데려다 주지!》하며 두 동무를 넝큼넝큼 끌어 올렸습니다.

두 동무는 《아이구 좋아!》하고 소리쳐 떠들며 뜨락또르에 올라 앉았습니다.

《아저씨 어디갔다 오세요?》

《응! 새로 온 파종기를 시험해 보구 오는 길이다》

《야! 아저씨는 뜨락또르 가지구 못하는 일이 없네…》

아저씨가 뜨락또르 운전수로 된 것은 지난해 봄부터였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고 논밭에 들어선 아저씨의 눈 앞에는 지난날 지주놈에게 얽매여 호미도 변변한 것 못가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다 돌아 가신 부모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그의 가슴에는 우리 나타 농촌을 행복의 동산으로 꽃 피워준 조선 로동당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샘솟듯 솟아 올랐습니다.

《그렇다 당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바쳐 일 하리라!》

아저씨는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어느날 저녁 력포 농업 협동 조합 마을에 나타나신 춘식 아저씨는 그 길로 밭을 돌아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느 밭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느 밭에 돌이 많은가를 미리 알아 두었다가 밤에도 계속 밭을 갈자는 것이 였습니다.

아저씨가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밭을 오르내리고 있을 때 륙십이 넘는 늙은 할아버지가 찾아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춘식 아저씨의 손을 덥석 잡으시며 《젊은이! 수고하네! 이 고장 땅에 대해선 내게 물어보게 40년을 이땅에 매달려 살아온 날세! 자 뜨락또르를 같이 타구 갈아 보세》하고 감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날 밤 할아버지는 춘식 아저씨가 그렇게 말려도 밤새도록 뜨락또르를 같이 타고 밭가리를 도와 주었습니다.

아저씨가 밤일을 할 때면 조합 마을 어머니들은 그가 굳이 사양하는 데도 막무가내기로 감자며 삶은 밤을 운전대에 올려 놓아 주군 하였습니다.

조합을 위해 한치의 땅이라도 더빨리 더깊이 갈기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아저씨는 이렇게 조합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시간만 있으면 뜨락또르에 련결차를 달고 퇴비를 나르고 가물이 드는 때면 양수도 하고 탈곡기도 돌려주고 씰로스도 잘라 주었습니다.

정말 춘식 아저씨의 뜨락또르는 조금도 쉴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합 마을에서는 그를 가리켜 쉬지 않는 뜨락또르라고 불렀습니다. 이리하여 영예로운 《민청호》의 칭호까지 받게 되였던 것입니다.

뜨락또르 앞머리에 《민청호》라고 새겨준 글자를 생각하고 있던 금실이는 《아저씨는 〈민청호〉라는 칭호까지 탄 뜨락또르 운전수이니 참말 좋겠어요》하고 부러운듯 말했습니다.

춘식 아저씨는 껄껄 웃으시며 《춘실이는 지금부터 학교 농산 크루쇼크에서 배우고 있으니 이제 학교만 졸업하면 뜨락또르 박사로도 농학자로도 될텐데 부러워 할게 있니》하고 말씀 하셨습니다.

《아저씨! 금년 봄엔 우리 마을에 오세요, 네 아저씨》

아저씨는 《그래 그래》하고 웃음을 지으시며 말을 이였습니다.

《이젠 우리들이 모두 한 식구란다. 앞으론 지난날과 같이 우리 뜨락또르 운전수들은 밭만 갈고 들어오지 않는다. 조합원들과 같이 한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내기 위해 조합의 한 식구가 되여 일한단다.》

아저씨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던 옥금이는 손벽을 치며 《아이구 좋아! 그럼 뜨락또르 운전수 아저씨와 늘 만나게 될게고 뜨락또르를 몰아볼 수도 있겠네! 아저씨! 아저씨와 상봉 모임을 가진후 우리 학교 동무들은 모두 뜨락또르 운전수가 되겠대요.》하며 좋아라 야단 쳤습니다.

곁에 앉았던 금실이도 《아저씨! 나는 뜨락또르도 몰고 꼼빠인도 몰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가요? 아저씨》하고 물었습니다.

《할 수 있구 말구, 지금 나도 꼼빠인, 파종기, 제초기 운전법을 배우고 있다. 우리 평남도는 래년까지는 대체로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하게 되는데 뜨락또르만 운전해서야 되겠니 그래 우리들은 새로 나오는 농기계들을 모두 자신있게 운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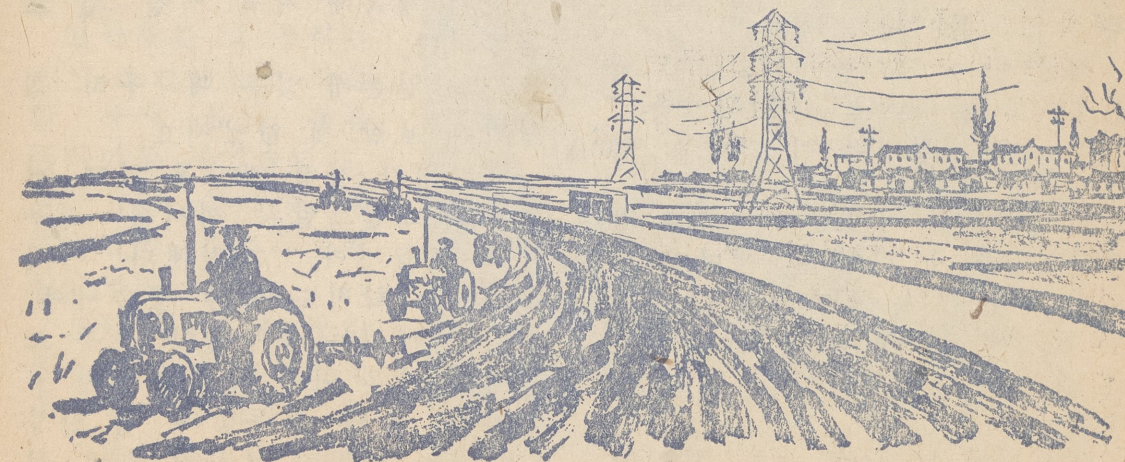
《야 그럼 래년에는 이 넓은 중화벌엔 별아별 기계들이 다 와서 일하겠지요? 그땐 얼마나 멋있을가?》

아저씨와 두 동무의 이야기는 끝날줄 몰랐습니다. 춘식 아저씨는 작업소 내 모든 아저씨들이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농촌 기계화를 앞당기며 보다 많은 곡식을 내기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밭을 더잘 갈기 위해 새로운 보섭을 창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작업소까지 다달아 두 동무는 뜨락또르에서 내려 아저씨와 헤여졌습니다. 《아저씨, 꼭 우리 마을에 오세요!》

아저씨는 두 동무의 웨침 소리에 손을 저어 대답하였습니다.

두 동무는 무연한 중화벌 한 복판을 끼고 뻗어간 신작로를 걸으면서 춘식 아저씨처럼 뜨락또르를 몰고 다닐 앞날을 그리며 흥겨운 뜨락또르 운전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편지를 쓰고 있는 류 순렬 동무
일본에 있는 자기 동무들에게

—일본 와까야마현 조선인
제 1 초급 학교 동무들에게—

새 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어머니—조국의 따뜻한 품에 안겨 1960년 새해를 맞은 나의 가슴은 무한한 행복과 희망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지금 나는 평양시 선교구역 남신동 3호동 아빠트 5현관 3층 7호실 우리 집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들의 사무실에 들어 가서야만 볼 수 있었던 커다란 책상에 마주 앉아 글을 쓰려니 너무도 감격에 겨워 무엇부터 적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라지오에선 지금 한창 어린이 시간이 여서 나의 동생 기렬이는 저쪽 방에서 그새 조국에 와서 친한 소년단원 동무들과 함께 재미있는 노래를 들으며 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엔 실로 없는게 없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훈훈한 방안에 들어 서면 김 일성 원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군 합니다. 초대소에서 아빠트에 이사온 처음 며칠 동안은 김 일성 원수님의 초상을 모신 이 방에서 잠시도 떠나려하지 않았지요. 원수님의 품에 오래오래 안겨 있고 싶었어요.

다시야 어찌 조국의 품을 떠나 설음에 가득찬 나날을 보내겠습니까.

집집마다엔 세면실, 목욕실까지 있는가 하면 부엌에는 수도까지 들어와 있답니다.

지금 어머니는 매일처럼 찾아와 새 살림을 돌봐 주는 이웃 어머니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른답니다.

사실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집 형편은 보잘 것 없었지요.

어머니가 간장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그날그날의 끼니를 겨우 이어 갔습니다. 그런데다 나와 기렬이의 학비도 대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동무들이 모두 조국에 돌아온 다음 마지막 배에 오십니다.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동무들이 방송을 통하여 들었겠지만 김 일성 원수님은 조국에 돌아와 새 살림을 꾸려가는 우리들의 집집마다 다녀 가셨습니다. 더우기 나는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열렸던 평양시 신년 축하 모임을 영원토록 잊을 수 없어요. 그처럼 보고 싶던 원수님과 한 자리에 앉아 이야기도 하고 춤추고 노래부르며 즐겁게 놀았지요.

나는 평양시 선교 고급 중학교 인민반 4학년에 입학 했답니다. 조국에서는 일본의 초급 학교에서 6년 동안에 배우는 것을 4년 동안에 다 배운답니다. 교과서를 보니 6학년 국어에 나오는《다시 찾은 피리》,《토끼전》,《어린 투사들》이 4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한 학교에 다니던 량 광조, 김 화자 동무들은 우리 학급이고 김 종가와 나의 동생은 3학년입니다.

입학하는 날 우리는 조선 소년단원의 자랑찬 궁지 높이 붉은 넥타이를 매였습니다. 교과서와 학습장, 철필, 연필, 잉크도 받았습니다.

또한 입학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소년단원 동무들이 정성껏 만든 스크랩인 ◎《김 일성 원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하여》와 붉은 기념 수첩도 받았지요. 요즈음 우리들은 매일 학교에 가서 우리 말과 글을 배운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노래와 춤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 말로 첫편지를 써서 동무들에게 보냅니다.

동무들! 우리 나라엔 수업료라는게 없으며 교과서도 돈을 내지 않고 거저 받습니다.

일본에서 돌아 온 여러 형님들은 김 일성 종합 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에 입학하였는데 형님들은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는답니다. 조국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동무들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따뜻한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오시오. 민주 수도 평양에서 우리 모두 그러 안을 그 날을 기다리며…

1960년 2월 3일
평양시 선교 고급 중학교 인민반
제 4학년 류 순렬 올림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순렬이네 식구들

토끼가 잘 자랍니다

여기는 평남 룡강군 후산 중학교입니다. 여보세요. 저 말입니까? 대위원장 윤 순자입니다.

우리 학교 토끼 사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 학교엔 어미 토끼 30마리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들어서면서도 계속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 사업을 잘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나구요? 우리들은 토끼우리를 잘 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춥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토끼 우리에 온돌을 놓고 토끼의 생활에 알맞는 온도로 방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끼들이 잘 먹는 영양'가 높은 호박, 시래기, 아까시야잎, 사라귀 같은 사료들도 많이 마련해서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추운 겨울에도 여름과 같이 새끼를 계속 낳는것이 아니겠어요. 글쎄 12월에 만도 14 마리의 토끼가 105 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럼요. 대단히 불어났지요. 또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새끼를 낳을 어미 토끼가 9마리나 됩니다.

어떻게 기르느냐구요? 젖이 떨어진 후에는 매개 동무들에게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4월에 들어서면서 우리 학교의 모든 동무들은 두 마리씩 기르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모든 열성을 다하여 더 많은 토끼들을 더 잘 기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경제림

여보세요. 《소년단》편집부입니까? 황해남도 송화군 오정 중학교 오 련구가 말합니다. 네 우리들은 지금 닥아 오는 봄철을 앞두고 경제림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준비를 해 왔느냐구요? 지난해 늦가을부터 일들을 시작했지요. 우리는 먼저 《경제림과 우리의 생활》이란 모임들을 열고 경제림이 얼마나 나라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경제림을 만드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림을 더욱 넉넉하게 해주는 중요한 일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소년단원들은 막 열성을 내여 일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 지난 가을 우리는 과일나무들인 배나무, 추리나무, 살구나무, 뽀뿌라나무, 아까시야나무 등 공업원료로 되는 나무를 자지집 근처나 길'가 그리고 학교 주변에 심었습니다. 네? 한 사람이 몇 그루씩 심었느냐구요? 다섯그루씩 심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들어서면서 우리들은 어린 나무들이 얼지 않도록 짚으로 싸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난 가을부터 우리는 8정보의 학교 경제림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림 보호원 아저씨와 식물과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시

내'가의 잔디밭을 학교 경제림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었느냐구요? 학교에서 자래운 뽀뿌라나무를 심었습니다. 깊이 50cm에 직경 50cm를 파고 25kg의 거름과 200g의 화학 비료를 주고 심을 때는 묘목이 5cm～10cm쯤 밖으로 보이게 심었습니다. 모두 만여대 가량 심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만여 그루의 뽀뿌라 묘목도 자래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가구요? 거름도 준비하고 조합 과수원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나 산림 보호원 아저씨들과 모임을 가지고 나무 심는 법, 가꾸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올 봄에 나무를 심기 시작할 때는 또 련락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착 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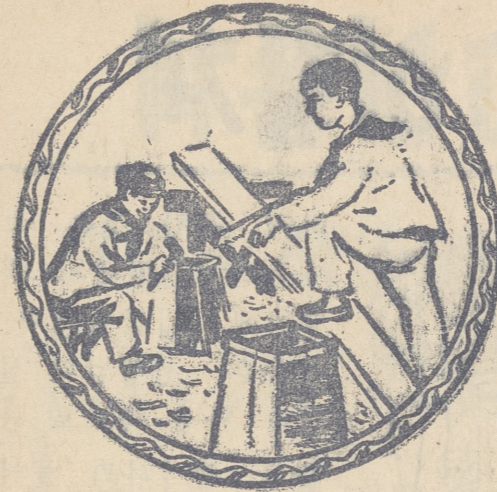
행동의 거울은 평남 순천군 사인 중학교 1분단 리 재옥, 마 영환 동무들의 착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인민반 학생들의 토끼사에 우연히 들렸던 이들은 금방 낳은 새끼 토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급히 집으로 가서 솜을 가져다 새끼 토끼를 싸주고 어미토끼에겐 먹이를 가져다 주고 자기 토끼처럼 알뜰히 보살펴 주었답니다.

영예군인 아저씨를 도와

눈을 쓸고 있는 동무들이 누구냐구요? 해주 고급 중학교 대 5분단 김 춘자 동무네 반 동무들이랍니다. 이들은 영예군인 아저씨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려고 이렇게 눈 내린날 아침 해주 영예군인 문방구 공장 앞마당 눈을 쓸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 행동입니까!

마 을 에 서 도 모 범

이들이 누구냐구요? 함남 광천군 봉화 중학교 최 성자, 박 청자 동무를 비롯한 5분단 3반 동무들이예요. 이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위생 문화 사업을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우물을 깨끗이 청결하고 공동 휴지통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서나 더러운 것을 보면 그냥 지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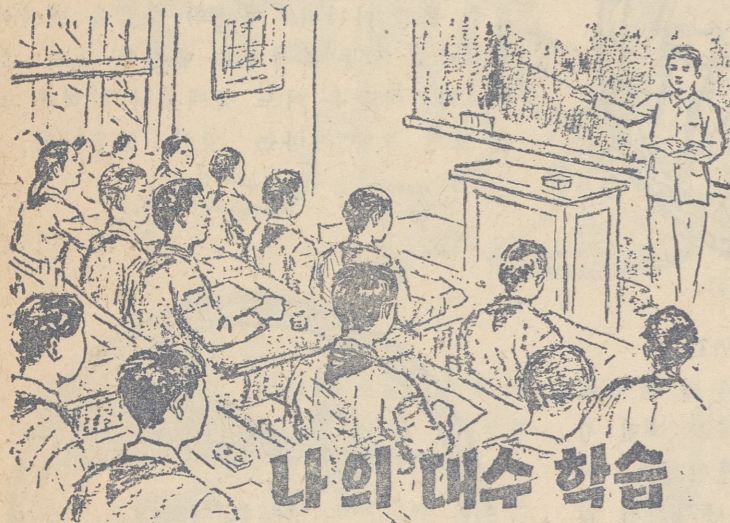
거울 속에 나타난 이 동무가 왜 물 속에 뛰여들고 있느냐구요? 썰매를 타던 김 동환 동무가 물에 빠졌기 때문이예요. 이 동무는 이 급한 때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옷을 입은 채로 물 속에 뛰여 들어 동환 동무를 구원하였지요.

이 자랑스럽고 용감한 동무는 청진 창평 중학교 전 영환 동무랍니다.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무를 구원하려는 마음! 이는 바로 우리의 슬기로운 혁명 투사들이 가르쳐 준 모범이였답니다.

자 랑 스 러 운 일

운전수 아저씨 혼자서 도랑에 빠진 자동차를 놓고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학교 갔다 오던 길에 이것을 발견한 함남 인흥군 호도 중학교 신 대천, 탁 영일 동무들은 집으로 달려가 삽과 괭이를 들고 나와 운전수 아저씨를 도왔습니다. 운전수 아저씨는 그후 학교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습한다

나의 대수 학습

나는 어느 과목보다도 대수 과목이 힘들었습니다. 대수 과목은 생각만 해도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수 시간이 되면 은근히 기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였냐구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만 특히 대수 과목은 시간중에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지 않고서는 집에 와서 복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중 선생님의 설명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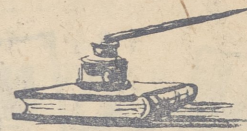
선생님은 시간에 들어 오시면 그 시간에 배울 것을 두 세번 설명합니다.

저는 첫번째 설명에서 잘 리해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번 설명에서 꼭 알기에 애썼습니다. 다음은 선생님의 설명을 마음 속으로 곰곰히 생각하며 풀어 봅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는 선생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례를 들어 칠판에다 풀때에는 잘 귀담아 듣고 끝까지 리해한 다음 학습장에 선생님이 푸신 그 례문을 옮기고 그와 비슷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풀어 봅니다.

대수 공부에서는 공식을 안 다음에 그를 리용하여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배운 공식을 가지고 3~4개의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 보군했습니다.

검산하여 답이 꼭 맞아 떨어지면 그 이상 기쁜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대수에 점점 재미를 부치게 되였고 성적도 좋아지게 되였습니다.

평양시 와산 중학교 대 5분단 최 명순

많은 책을 읽는다

나는 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 력사 학습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날 나는 《우리 나라 명인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는중에 고구려의 을지 문덕 장군을 비롯한 삼국시대 명장들의 투쟁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 후 력사 시간에 우리 나라 삼국시대의 사회 형편을 배웠는데 알기도 쉬웠고 그 내용이 잊어지지 안았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전설, 고전 소설들을 많이 읽게 되였습니다. 나는 이런 책들을 읽을 때는 력사에서 배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긴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생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박 연암 선생이 쓰신 《허생전》 《량반전》 등을 읽고 18세기 우리 나라 봉건 사회 지배 계급들에 대하여, 사회 형편에 대하여 잘 리해하게 되였습니다.

함남 북청군 성남 중학교대 제 2분단 리 명옥

이것을 아십니까

첫 현미경이 어떻게 생겨 났을가?

현미경은 옛날 안경을 만들던 자하르 야쎈이라는 사람이 발명 한것입니다.

집안에서 놀고 있던 그의 아이들이 방구석에 놓여 있던 긴 구리관 량끝에 안경알을 마추어 가지고 놀지 안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관을 들여다 보니 물건들은 더 커 보였고 신문에 찍힌 글자들은 큰 벌레만 하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안경을 만드는 일을 하던 야쎈은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는 다른 관을 만들고 안경 알을 끼었는데 그 때부터 물건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생겨 났답니다.

소년단원들—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척척 할아버지—오냐 너희들 왔구나, 새학기를 맞이해서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아니 그런데 이번엔 웬 동무들이 이렇게 많이 왔니.

창길—저는 량강도에서 왔어요. 처음 할아버지를 뵈워요. 오늘 여기엔 공화국의 곳곳에서 다 왔어요.

척척 할아버지—허허…그래?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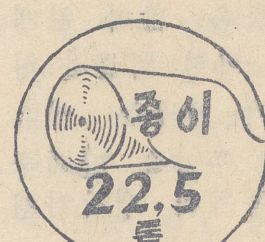
창길—경제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왔어요.

척척 할아버지—참 작년에 열린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경제림을 만드는 일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 했지. 그래 너희들 산림이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느냐?

영순—목재를 주어 집을 짓게하고, 또 경치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요.

척척 할아버지—그것 뿐일가?

용찬—영순인 중요한걸 빠쳤어요, 나무에서는 비단, 종이, 기름, 맛있는 식료품, 향수, 약, 물감…못 만드는게 없어요. 또 사태도 나지 않게 하고요.

척척 할아버지—잘 대답했다. 그러기에 산림은 인민 경제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이다. 우리 나라에는 3.500여 종의 식물과 600여 종의 동물이 있단다. 산이 많은 우리 나라에서는 이 풍부한 산림을 옳게 가꾸기만 한다면 우리의 살림 살이가 더 늘어 날건 뻔한 일이지, 그래서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을 계속 잘 가꾸면서 5~6년 안으로 천, 종이와 같은 공업 원료로 되는 섬유 제지림을 30만 정보, 기름을 짜는 공업 원료로 되는 유지림은 20만 정보, 이렇게 모두 50만 정보의 경제림을 일구기로 결정했단다.

영애—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한 개의 산이나 골짜기를 소년단원들이 맡아서 가꾸는 경제림을 일구려고 해요.

척척 할아버지—그건 훌륭한 생각이다.

영애—할아버지 경제림에는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좋습니까?

척척 할아버지—천이나, 종이, 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공업 원료로 되는 나무로서 그 지대에 알맞는 나무들을 골라서 심어야 한다.

영애—할아버지, 그럼 그 나무 이름을 몇 가지만 들어 주세요.

척척 할아버지—그래, 천이나 종이의 원료로 쓰는 나무는 뽀뿌라, 황철 나무, 백양나무, 닥나무, 노박 넌출…들이다.

기철—그 나무들은 심어서 몇 년 자래우면 원료로 쓸 수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뽀뿌라는 15~20년 자래우면 된다. 한 정보(3,000평)의 땅에서 자라난 뽀뿌라에서는 77,600m 이상의 천을 짤 수 있다. 이것은 같은 한 정보의 밭에 목화를 심는 것보다 로력과 돈을 훨씬 적게 들이고도 매년 2배 이상의 천을 짤 수 있는 원료를 얻는 것으로 된단다.

소년단원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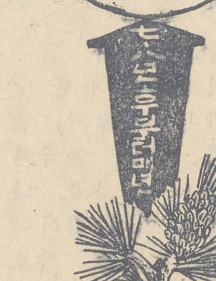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닥나무는 2~3년 자라면 되는데 1정보의 땅에서 나는 닥나무로 825kg의 고급 한지를 만들 수 있다. 또 황철 나무는 15~20년이면 되는데 1정보의 땅에서 나는 황철 나무로 22.5t의 종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음 노박 넌출은 3년만 자래우면 옷감의 원료로 할 수 있다.

기철—그 나무들은 어떤 곳에 심으면 잘 자랄 수 있나요?

척척 할아버지—지금 말한 그 나무들은 대체로 부락이나 도로, 강과 시내'가 또는 습기가 좀 도는 산'기슭에서 잘 자란다. 너희들은 우리 나라 곳곳에서 왔다기에 지방별로 말하겠다. 뽀뿌라와 황철 나무는 주로 내'가에서 잘 자라는데 뽀뿌라는 함남 이남 지방에서 심는 것이 좋고 황철은 함남 이북과 중부 지대 또는 고지대에서 심는 것이 좋다. 닥나무는 물이 잘 빠지며 땅이 걸고 자갈이 섞인 식토 혹은 양토(진흙, 가는 모래, 운모가 섞인 땅)에서 잘 자란다. 그래서 해안 연선 산'기슭 양지바르고 바람이 세지 않은 남쪽 켠에 심어야 한다.

노박 넌출은 높은 고원 지대가 아닌 곳이라면 그 어데서나 다 잘 자란다. 이 나무는 산'기슭, 산'골짜기에 심는 것이 좋다.

순자—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하나 묻겠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잣나무 밭을 만들려고 8,000본의 잣나무 묘목을 키우는 데 이 나무는 어떤 땅에 좋습니까?

척척 할아버지—그러지 않아도 내가 유지림에 대해서도 말해 주려고 했다. 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는 나무들은 이자 순자네 학교에서 심겠다고 하는 잣나무와, 가래, 호도, 붉지, 은행 나무들이다. 잣나무는 땅이 걸고 습기가 많은 서쪽이나 또는 북쪽을 좋아한다. 지방 별로 나누어 말한다면 서해안에서는 산 중턱에 심는 것이 좋고 동해안에서는 산'골짜기에

심는 것이 좋다. 중부 지대에서는 산'기슭, 산 중턱, 산마루 어느곳이나 좋다. 고지대에서는 산'기슭과 골짜기에 심어야 한다.

잣나무는 심어서 7~8년만 되면 해마다 한 정보의 땅에서 45kg의 기름을 짤 수 있는 열매를 딸 수 있다.

춘식—가래, 호도, 분지, 은행 나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세요.

척척 할아버지—분지 나무는 심어서 2~3년만 되면 1정보의 땅에서 해마다 90kg의 기름을 짤 수 있는 열매를 따게 되고, 호도 나무는 6~7년만 자래우면 1정보의 땅에서 해마다 340kg의 고급 기름을 짤 수 있는 열매를 딸 수 있다. 자강도에서 누가 오지 않았느냐?

윤호—제가 왔습니다.

척척 할아버지—아, 그래 자강도에는 가래 나무가 많지? 가래 나무는 자강도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다. 자강도에서 사는 동무들은 가래 나무를 많이 심는게 좋다. 가래 나무는 해안 지대에서는 산'골짜기에 심고, 중부 지대와 고지대에서는 산'기슭과 산'골짜기의 건땅에 심어야 한다.

호도 나무는 서해안 지대에서는 황해북도이남, 동해안에서는 원산 이남에서 잘 자란다. 이 나무는 부락 주변에 심어야 한다.

옥자—할아버지, 우리들이 심어야할 나무의 종류는 그 뿐인가요?

척척 할아버지—왜 그 뿐이겠니, 맛 좋은 과자, 잼, 통조림 같은 식료품을 만들 수 있는 산딸기, 돌배, 살구, 들쭉과 같은 산 과실 나무도 많이 심어야지, 그리고 향료나 물'감의 원료로 되는 수수꽃다리, 백리향, 해당화, 백산차, 산초나무, 생강나무, 옻나무, 오동나무, 참대, 고리버들, 황경피나무, 굴참나무들을 많이 심어야 한다.

고급 기름
340
키로 그람씩
호도나무를 1정보의 땅에 심는다면…

기식—할아버지 우리 마을에는 높은 산과 연적'골이라는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을 우리들이 담당해서 경제림을 일쿠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나무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좋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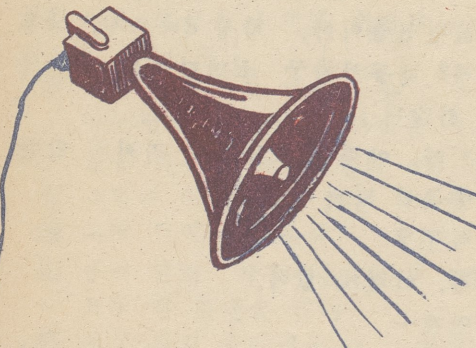
척척 할아버지—참 훌륭한 일을 계획하고 있구먼, 동무는 어느 지방에서 왔던가?

기식—강원도 법동군에서 왔어요.

척척 할아버지—법동군이라… 그럼 그 깊은 산'골짜기에는 가래나무를 심는 것이 좋아, 그리고 그 높은 산의 응달에는 이깔 나무를 심고 남쪽의 양지 바른 산'기슭에는 밤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산 중턱에는 참싸리를 심어라, 참싸리는 양지바른 곳이면 우리 나라 어데서나 잘 되는데 종자로서는 기름을 짜고, 껍질로서는 섬유를 뽑고, 대는 여러가지 세공품을 만들고 또 철근 대신으로도 쓴단다. 또 꿀벌들을 쳐서 꽃에선 꿀을 받고, 줄기는 가축사료로 쓰고 얼마나 좋으냐,

기식—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척척 할아버지—동무들은 돌아가면 먼저 경제림을 만들 지대의 지형, 지질, 또 그 지대에 지금 어떤 나무들이 있는가를 잘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대의 산'기슭, 산'골짜기, 산 중턱, 산마루에 알맞는 나무 종류들을 골라서 계획을 세우고 심도록해야한다. 그러되 일정한 폭을 가진 띠모양으로 규모있게 심도록 해야 한다.

소년단원들—돌아 가면 꼭 할아버지께서 가르친대로 하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요.

글 리창기　　　그림 전의남

△ 소년단 갑, 을 옷을 말쑥히 입고 나와서 소년단 경례를 드린다.

갑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표정으로 을의 얼굴을 한참 쳐다 본다.)

을 (자기 얼굴을 의심해서 쓸어 만져 보며) 너 왜 남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만 보구 있니?

갑 어서 해 봐!

을 뭣을 해 봐?

갑 여기서 자기 비판을 해보란 말이야!

을 뭐? 자기 비판?

갑 그래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비판해!

을 아니 얘가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내가 무슨 잘못한게 있다구.

갑 너 그래 잘못한게 없단 말이냐?

을 없지 않구!?

갑 정말 없어?

을 정말 아니구!?

갑 (다짐하듯) 정말?

을 정말!

갑 그럼 내가 동무들 앞에서 폭로 해두 좋으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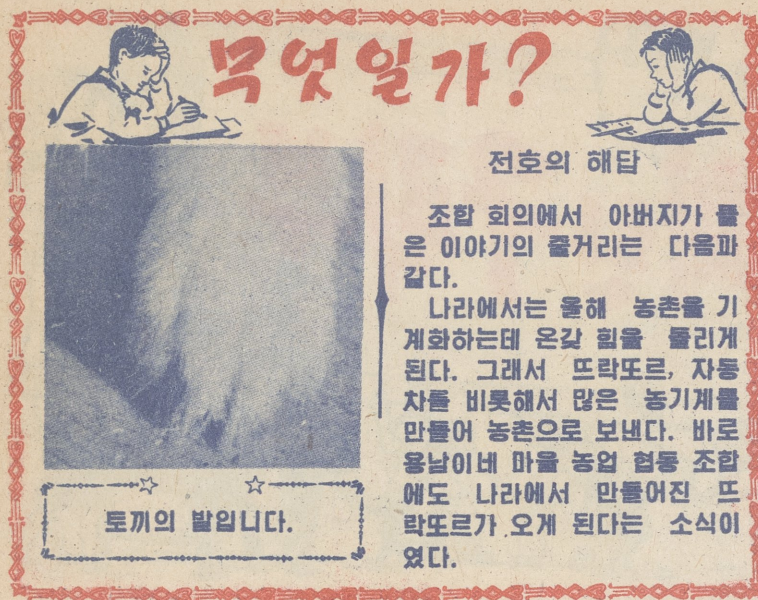
을 그래 좋아.

갑 너 어저께 길'거리에서 조끄만 어린앨 때렸지?

을 (놀란 표정으로) 뭐? 내가 조끄만 어린앨 때려?… 내가 언제?

갑 흥, 내 못본줄 알구.

을 (기막혀서) 원 참, 별소릴 다 듣겠다. 너 다른 애가 그런걸 잘못 보구 하는

무엇일가?

토끼의 발입니다.

전호의 해답

조합 회의에서 아버지가 들은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나라에서는 올해 농촌을 기계화하는데 온갖 힘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은 농기계를 만들어 농촌으로 보낸다. 바로 용남이네 마을 농업 협동 조합에도 나라에서 만들어진 뜨락또르가 오게 된다는 소식이였다.

소리 아니냐?

갑 이건 왜 이래 내 눈이 소경인줄 아니 귀신은 속여두 난 못속여!

을 난 정말 어린앨 때린 일 없어!

갑 정말 안때렸다구? 너 어저께 큰거리에서 우는 애 팔을 끌구 골목길루 들어 갔었지?

을 그래!

갑 그것 봐! 그런데두 끝내 속일 참이냐?

을 속이긴 뭘 속여?

갑 그 앨 네가 잔뜩 때려 놓구 엉엉 우니까 거기 있다간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골목 길루 끌구 갔지?

을 생각두 신통하지!

갑 웃긴… 인제 폭로 되니까 할말 없나 보지

을 그건 내가 그앨 때린게 아니구 그 애가 길을 잊어서 울구 있길래 걔네 집을 찾아서 집에까지 데려다 준거야!

갑 뭐? 네가 그 애를 때린게 아니구 길'가에서 우는 애를 집을 찾아 데려다 준거라구?

을 그럼!

갑 오! 그런걸 난 또… 하하하…

을 아무려문 내가 그런 나쁜 행동을 할리가 있니,

갑 그럼 그렇겠지! (오해를 풀고) 인제 알구 보니 넌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을 (점적해서) 뭐 — 우린 소년단원들이야, 항상 《바르게, 아름답게》 행동하자구 소년단에서 늘 의론 하잖니!

갑 하지만, 아직두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동무들이 더러 있어!

을 아직두?

갑 그럼. 이런게 있어.

을 어떤게…

△ 갑은 소년단원 1. 을은 소년단원 2역을 한다.

소년단원 1. (소년단원 2의 어깨를 툭 쳐 밀며) 이 새끼야 이리 내

소년단원2. 을꾼아 뭘그래? (매서운 눈초리로 아래 우를 흝어본다)

소년단원1. 네가 내 공 가졌지?

소년단원 2. 공—?

소년단원 1. 그래

소년단원 2. 가졌다 뿔간? (뿔겠니) (배'장 내민다.)

소년단원 1. 왜 남의 공을 말없이 가져? 이새끼야 남의 공을 공짜루 먹구 떨어질 셈이냐? (달려 들어 멱살을 잡는다)

소년단원 2. (같이 멱살을 잡는다) 이 새끼! 해보잔? (때리려고 주먹을 쳐들때)

소년단원 1. 아! (먼곳을 가리키며) 저기 선생님이 오신다!

소년단원 2. 뭐? 선생님이! (가리킨 쪽을 바라 보고) 었다! (마지 못해 공을 내준다)

× ×

갑, 을 (웃음)

갑 이런 행동은 도덕에 위반되는 아주 나쁜 행동이야!

을 그럼! 동무들 끼리 노는 것두 바르게 아름답게 놀아야지, 더러운 욕을 하구 쌈을 하는건 소년단원의 수치야!

갑 그런데 이런건 더 못된 버릇이야!

을 그건 어떤 버릇인데

갑 우리 옆집 막동이는 자기 할아버지 보구 막 반말을 한다.

을 뭐? 자기 할아버지 보구 반말을 해?

갑 그럼 저이 할아버지 보구 (막동이 흉내) 《할아버지, 밥먹으루마》 이러거던

을 거 참 말버릇 고약 하구나!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안 그러구 《할아버지 밥먹으루마》 이게 무슨 말버릇 이람.

갑 그 뿐이면 좋게 또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책

전호의 해답

붉은 줄을 따라가면 집으로 찾아 갈 수 있습니다

가방을 방바닥에다 획 내 던지군 그달음으로 (뛰여 가는 시늉을 한다) 막 뛰여 가지

을 오! 부모님의 심부름을 뛰여 간단 말이지?

갑 심부름은 웬 심부름?

을 그럼 뭘하려 뛰여 가?

갑 뽈 차러 뛰여 가지 뭐

을 아니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신 집안 일도 돕지 않구?

갑 그럼, 정신 없이 그저… (발로 뽈을 굴리는 시늉을 하며 을의 앞을 지나 간다) 슷, 슷, 쉬유!…

을 (《사회 질서 협조대》 완장을 꺼내여 팔에다 둘으고) 동무, 동무!

갑 (멈칫서서 뒤돌아다 보며) 뭘 그래?

을 동문 왜 거리에서 뽈을 차구 다닙니까?

갑 (팔에둘은 을의 완장을 보고 당황해서) 이건 저

(이)(것)(을)(아)(십)(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모으면 얼마나 될가?

만약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전부 모아 덩어리를 만든다면 한변이 180 m나 되는 립방체가 될 수 있답니다.

톱이 어떻게 생겨 났을가?

톱이 생겨난 것은 옛날 희랍의 달로스란 사람이 배암의 이'발을 살펴보고 생각한 끝에 톱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물에 들어 있는 소금의 량은?

만일 바다물에 들어 있는 소금을 다 뽑아 낸다면 그 소금으로 전체 륙지를 130m 두터이로 덮을 수 있습니다.

헤헤… 뽈을 찬게 아닙니다.

을 뽈을 찬게 아니면 뽈이 제발을 가지구 여기까지 저절루 걸어 왔단 말입니까?

갑 (뒤'머리를 썩썩 긁으며) 사실은 뽈을 찬게 아니구 발루 슬슬 굴린겁니다.

× ×

을 하하하… 거 참 핑게가 그럴듯 하구나

갑 하하하…

을 그래, 그 막동이란 애가 그렇게 행동을 하구서두 일 없었나?

갑 일 없긴… 학교에 알려져서 학교 정문 벽보판에다 《교통 질서 위반한 김 막동이》하구 크게 이름이 나 붙었지!

을 그러니 그게 어디 된 일이냐

갑 이건 소년단원 답지 않은 행동이지뭐, 이렇게 막동이 처럼 어른들 앞에 반말을 하구 집안 일을 도와 주지 않구, 나다니면서 교통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은 소년단원의 영예를 더럽히는 나쁜 행동이란 말이야!

을 우리 소년단원들겐 그런 행동이 하나두 없어야 할텐데…

갑 우리 소년단원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선 첫째로 학습을 잘 해야지만 말두 행동두 바르구 아름답게 해야하거든!

을 그리구 항상 옷차림도 단정히 해야하구!

갑 어른들을 존경하구!

을 군중 도덕을 잘지키구!

갑 뻐스에 오를 땐…

을 순서대로!

갑 어른들에겐 자리를 내여 드리구!

을 인사 례절을 잘 지키구!

갑 언제나 어데서나 항상 바르게, 아름답게 도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지!

을 (큰 소리로) 차렷!

갑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한다.)

을 경례! (갑, 을 동시에 소년단 경례를 절도 있게한다.)

—끝—

오락 놀아 보세요!

글 신순기

물빛 변하기

도 구

유리 고뿌 1개

검정 보자기(4방 60센치정도) 1매

고뿌 안에 마라 넣을 검정 종이 1매

놀음 방법

책상 우에 검정 종이가 들어 있는 유리 고뿌에 물을 가득히 넣어 검정 보자기를 덮어둔다.

연기자는 보자기를 벗기고 고뿌를 들어 물을 조금 쏟으면서 마치 먹물이 들어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다음 고뿌를 책상 우에 다시 놓고 검정 보자기를 씌웠다가 벗기면 물이 맑아진다. 그것은 보자기를 벗길 때에 보자기와 함께 고뿌 안에 들어 있는 검정 종이를 오른 손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가볍게 들어 내였기 때문이다. 이때에 검정 종이가 들어나 보이지 않도록 책상 우에 놓아야 한다. 끝나면 반드시 고뿌를 들어 물을 쏟으면서 빈고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림 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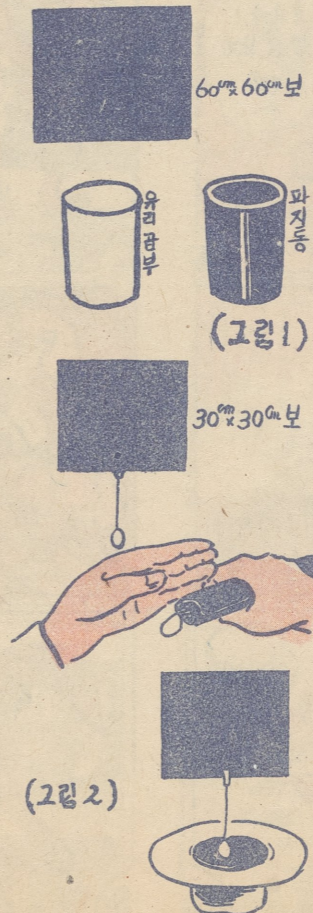
(그림1)

계란 만들기

도 구

검정 손수건(4방 30센치 정도) 1매

계란(빈껍질) 1개

검정실(25센치 정도)1오리

계란 받아 넣는 그릇 (중절모자도 된다) 1개

놀음 방법

검정 수건 한쪽 중심에 계란을 줄로 매여 달아 그릇 속에 넣어 두고 손수건을 덮어 놓는다. 그때에 계란줄이 매여 달린쪽을 상대편 쪽으로 놓아 둔다.

연기자는 수건 량쪽을 쥐고 계란이 들어나지 않을 정도로 처들어 앞뒷면에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을 보인 다음 다시 놓을 때에 계란줄이 매달린 쪽을 자기 쪽으로 향하게 놓아 둔다. 두번째 들어 올릴 때에는 계란이 달려 올라 오도록 수건을 들어 올려서 계란이 수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용히 계란을 중심으로 둥글게 말아 량쪽을 쥔 다음 오른손 쪽을 약간 처들어 계란을 꺼내기 쉽도록 한 다음 회파람을 불거나 어떤 소리를 내면서 왼손으로 계란을 끄집어 내되 들어 올리지 말고 눈치 있게 본래의 그릇에 넣는다. 이렇게 되풀이 하여 3개 가량 꺼내는 것이 적당하다. 너무 여러 번 같은 동작을 계속하게 되면 폭로될 수 있다. (그림 제 2)

(그림2)

만화
착한 알룩이
남현주 그림

착하고 부지런한 우리 동산은 서로 도와 살아가는 행복한 동산

나 좀 살려 주어요!

엄마!
다람쥐야 기다려!

울지마! 큰일 날번 했구나

착하고 부지런한 알룩이 고맙다!
뭘요!

에헤라 풍년일세 우리 동산 풍년일세

으흐흐 배가 고프더니 잘 됐군!

이놈 게 섰거라!
어머나!

이놈!
앗!

빨리가서 이놈을....
에그머니 알룩이구나!

알룩이가 승냥이께 잡혔어요!

갑시다!
갑시다.
착하고 부지런한 알룩이를 살려줘요
갑시다!

흐흐흐! 조금만 기다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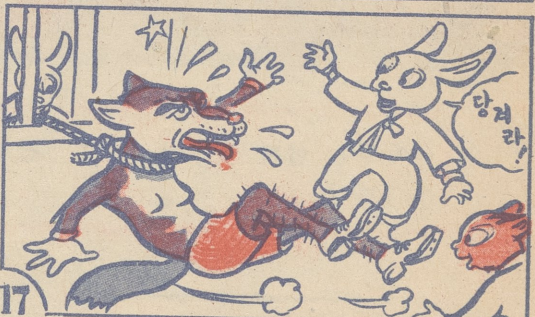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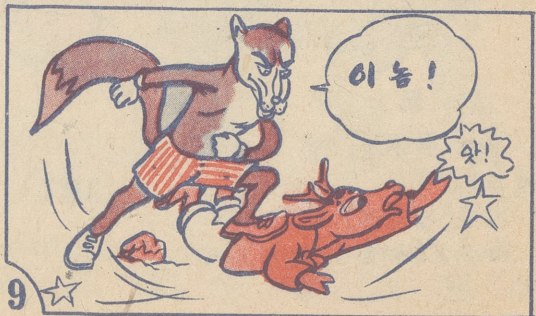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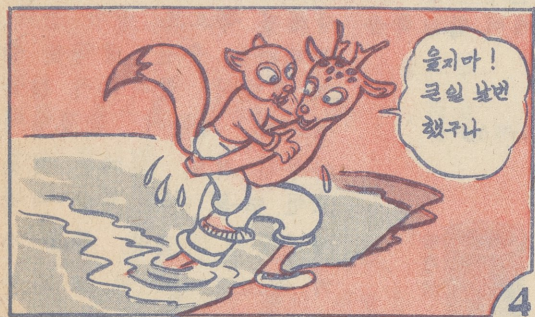
아주머니! 올가미를 만듭시다.
토끼야 어떻게면 좋니?

자! 빨리 빨리!

살금 살금

당겨라!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아이구!

네가 착하고 부지런한 때문이야!
아주머니 고마워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년단원 동무들! 여기에 실린 사진들을 살펴 보세요. 아마 직접 보지 못한 동무들은 책에서나 신문에서 여러번 보았을 거예요. 동무들이 아는 대로 적어 보내세요.

이것은 어데 있으며 무슨 건물입니까?

이 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데 세워 졌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일까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0년 제 2 호 (총124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1051 값 25 전 150,000부발행

쥐와 참새를 모조리 잡자

한쌍의 쥐는 1년이 지나면 800마리로 된다. 하루 한마리의 쥐가 먹는 량곡은 30g이다. 만일 쥐 1천만 마리가 있다고 하면 1년 동안에 11만 톤의 알곡을 먹는 것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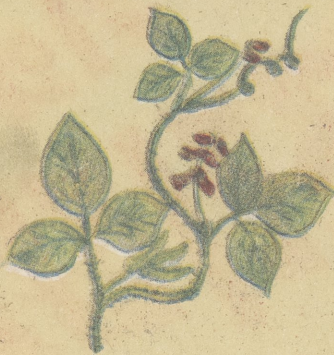
한쌍의 참새는 1년 동안에 10—30마리의 새끼를 까는데 어미 참새와 새끼들이 한해 동안 먹는 량곡은 60kg이다. 만일 참새 10만 마리가 있다고 하면 1년 동안에 22만 5천kg의 알곡을 먹는 것으로 된다. 소년단원 동무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쥐와 참새를 모조리 잡아 없애자.

쥐를 잡는 여러가지 방법

참새를 잡는 여러가지 방법

토끼가 좋아하는 풀들

민들레

우리 나라 어데나 있다. 민들레의 줄기와 잎에는 젖과 같은 흰 즙이 있고 부두러워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풀종의 하나이다.

새 콩

새콩은 들판에서 나서 나무에 휘휘 감고 올라가는 식물이다. 넝쿨채로 거두어다 토끼를 주면 잘 먹는다. 영양가도 높다.

씀바귀

길'가나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줄기와 잎에 젖과 같이 흰 즙이 있다. 이 즙은 쓰다. 씀바귀는 토끼가 가장 많이 먹는 풀종의 하나이다. 가을에 씨를 따다 봄에 토끼 우리 주위나 산비탈에 심으면 손쉽게 사료를 얻을 수 있다.

싸리 순

우리 나라 산 들에 많은 싸리는 좋은 토끼 사료이다.

6—7월 꽃 필때 부두러운 잎순을 뜯어서 그늘에 말리워 두었다가 겨울 동안 먹이면 좋다.

능쟁이

길'가,들판, 밭 근처에서 많이 자란다. 그의 크기는 40cm 정도이고 잎의 주변은 톱날 모양으로 되였다.

영양가가 높아 토끼 사료로 좋다.

참소리쟁이

길'가,개울'가, 들판의 우무러 지고 습기가 있는 곳에 자라는데 그 모양은 시금치와 비슷하다.

6월경 좋이 나와서 꽃이 피기 전에 잎을 뜯어다 발정기에 있는 어미 토끼에게 주면 잘 먹는다.

메

우리 나라 들과 산 어데나 많다. 넝쿨은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간다. 뿌리(메라고도 부른다)는 물론, 넝쿨들을 토끼는 좋아한다.

쇠비름

이 풀은 마당 주변, 들판, 밭 어데나 많이 나는 풀이다. 이 풀에는 단백질과 지방질이 섞여 있어 영양가가 [illegible]다. [illegible]에 씨를 받았다가 [illegible]에 습기가 있는 들판에 심으면 사료를 얻을 수 있다.